

해외출장
보고서

삶의 질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재생 지원사업

프랑스 사회혁신실험 지원·추진기관 면담 및 사회혁신실험 사례 조사

2023.8.27. - 9.3.
프랑스 파리, 몽펠리에, 아를, 마르세유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목 차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 출장개요	1
2. 출장목적 및 방문기관	1
3. 세부일정	2
II. 사례지 현장조사 및 면담	3
1. (면담)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	3
2. (현장조사·면담) Censure 및 Plateau Urbain	9
3. (현장조사) Station F	14
4. (현장조사) Pavillon de l'Arsenal	16
5. (현장조사·면담) Les Arceaux 및 Cabanon Vertical	18
6. (현장조사·면담) Les Cevennes 및 Cabanon Vertical	20
7. (현장조사·면담) Barriol 및 Cabanon Vertical	23
8. (현장조사) Airbel	26
9. (현장조사·면담) 8 Pillards 및 Cabanon Vertical	28
10. (현장조사) Friche la belle de mai	31
11. (현장조사) Street Corner	33
12. (면담) L'Adeus의 Maxence Morteau 도시사회학자·환경엔지니어	34
13. (현장조사) Coco Velten 사례 현장조사	39
14. (현장조사) Espace Voltaire 사례 현장조사	41
15. (현장조사) Ground Control 사례 현장조사	44
16. (면담) 소르본대 기업가정신·지역·혁신 연구소(Chaire-ETI)의 한승훈 디자이너	46
III. 출장 성과 및 시사점 요약	49
IV. 취득자료	50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출장개요

- 사 업 명 : 삶의 질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재생 지원사업
- 출장기간 : 2023.8.27.(일) ~ 2023.9.3.(일) (6박 8일)
-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몽펠리에, 아를, 마르세유
- 출 장 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2. 출장목적 및 방문기관

□ 출장목적

- 프랑스 사회혁신실험 사례 조사
 - 복합문화시설, 공공공간, 미술관 등 사회혁신실험 과정을 통해 조성된 시설 현장조사
 - 추진주체와 사례지에 동행하여 사회혁신실험 추진 배경 및 과정, 여건에 대해 인터뷰
- 프랑스 사회혁신실험 지원기관 및 추진주체 면담
 - 사회혁신실험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ANRU, 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관계자 면담
 - 사회혁신실험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민간주체인 플라토 위흐방(Plateau Urbain), 까비농 벅 락칼(Cabanon Vertical), 라데우스(L'Adeus) 등 관계자 면담

□ 방문기관 및 답사지

- (방문기관)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추진 관련 기관
 -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ANRU, 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 플라토 위흐방(Plateau Urbain)
 - 까비농 벅티칼(Cabanon Vertical)
 - 라데우스(L'Adeus)
- (답사지) 파리, 몽펠리에, 아를, 마르세유 소재 사례지
 - (파리) Cesure, Station F, Pavillon de l'Arsenal, Espace Voltaire, Ground Control
 - (몽펠리에) Les Arceaux, Les Cévennes
 - (아를) Barriol
 - (마르세유) Airbel, 8 Pillards, Friche la belle de mai, Street Corner, Coco Velten

3. 세부일정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8/27(일)	12:20-18:30 (13h 10m)	인천	파리	출국 (ICN - CDG)
8/28(월)	10:00-14:00	파리		[회의] ·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ANRU) 관계자 면담
	14:00-18:00			[회의, 현장조사] · Cesure 사례 현장조사 · 추진주체 Plateau Urbain 면담
	18:00-19:00			[현장조사] · Station F 사례 현장조사
8/29(화)	10:00-12:00	파리	몽펠리에	[현장조사] · Pavillon de l'Arsenal 사례 현장조사
	14:56-18:08			이동
	18:00-19:00			[현장조사] · Les Arceaux 사례 현장조사 · 추진주체 Cabanon Vertical 면담
8/30(수)	09:00-13:00	몽펠리에	아를	[회의, 현장조사] · Les Cévennes 사례 현장조사 · 추진주체 Cabanon Vertical 면담
	13:00-15:00			이동
	15:00-19:00			[회의, 현장조사] · Barriol 사례 현장조사 · 추진주체 Cabanon Vertical 면담
	19:00-20:00			이동
8/31(목)	9:00-11:00	마르세유		[현장조사] · Airbel 사례 현장조사
	11:00-13:00			[현장조사] · 8 Pillards 사례 현장조사
	15:00-18:00			[현장조사] · Friche la belle de mai 사례 현장조사
9/1(금)	9:00-11:00	마르세유		[현장조사] · Street Corner 사례 현장조사
	11:00-13:00			[회의] · L'Adeus의 Maxence Morteau 도시사회학자 · 환경엔지니어 면담
	14:00-16:00			[현장조사] · Coco Velten 사례 현장조사
	17:00-20:22			이동
9/2(토)	10:00-12:00	파리		[현장조사] · Espace Voltaire 사례 현장조사
	14:00-16:00			[현장조사] · Ground Control 사례 현장조사
	16:00-18:00			[회의] · 소르본대 기업가정신·지역·혁신 연구소(Chaire-ETI) 한승훈 디자이너 면담
	21:00-			
9/3(일)	-15:45 (11h 45m)	파리	인천	귀국 (CDG - ICN)

II. 사례지 현장조사 및 인터뷰

1. (면담)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ANRU, 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 일시 : 2023.8.28.(월) 10:00-14:00
- 장소 :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ANRU) 본부
- 주요안건
 -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 주요 사업, 역할
 - 프랑스 사회혁신실험 추진 동향 및 사업 현황 등
- 참석자
 - (원외)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 Helene Gros(Management and innovation manager, Methodology and innovation process manager), Laila Haddag(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manager in the strategy and stakeholder support department), Kim Chiusano(Assistant Director of Strategy and Support for Actors at ANRU)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 프랑스 국립 도시재생청 개요

- (설립근거) 2003년 프랑스 「도시 및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 및 프로그래밍법(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enovation urbaine)」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공공기관
- (설립목적) 쇠퇴지역의 근린재생 지원
- (주요역할)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정책) 추진 등
 - ANRU 설립 이전에는 프랑스의 다양한 정부부처가 정책을 통해 쇠퇴지역 재생을 추진
 - 주로 이민가,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사회주택 단지를 중심으로한 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거주민의 이주, 정착, 신규주택 건설, 옥외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비 등 역할 수행
 -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로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 쇠퇴지역의 대형 집합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에서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정비하길 원함
 - 많은 지자체(시, 구)에서 ANRU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사회주택업체, 상인, 재생사업 수행기관, 민간기관 등)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ANRU에 의뢰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지자체와 관련 주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업을 수행
 - 이러한 프로젝트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음 1)주민과 대화를하여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2)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세부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이는 주민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됨, 이외에도 많은 세부 규칙이 있음

- **(사업추진 현황 및 내용)** 최근 10년 동안 프랑스 전역에 500여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개별 프로젝트는 전부 다른 환경에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내용과 방식을 다르게 함
 -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며, 일반적으로 철거 - 철거 및 신규주택 조성 - 리모델링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은 별도 중앙부처 승인이 아닌 ANRU에서 승인하여 추진
 - 철거는 필수가 아니며, 철거시 기존 주민의 이주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음
 - 프랑스 전체 15백개 지자체 중 5백개 지자체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120억 유로를 투자하여 10년간 추진

□ 프랑스 사회혁신실험 현황

- **(사회혁신실험 관련 개념)** 프랑스의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개념이 AURI에서 말하는 사회혁신실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임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은 프랑스에서도 최근 논의가 확대된 개념으로, 정비사업 추진 이전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일련의 활동을 폭넓게 지칭함
 - ANRU는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재생사업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는 과도기에 임시적으로 추진되는 제반 활동을 지칭하며, ANRU의 사업에서는 사회주택 등의 재생을 위해 옥외 공공공간을 정비하고 활성화하는 활동, 주민과 함께 단지의 재생방향을 설정하는 활동 등을 지칭
 - 프랑스에서 정비사업에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을 적용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을 만큼 프랑스 내부에서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있음
 - 공간의 영구적 변화 이전에 공간의 사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임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방법론 구축)** ANRU에서 30여명의 관계자를 모아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
 - 30여명의 관계자가 모여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지원할 것인가',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
 - 이를 기반으로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으며, 까바논 벡티칼(Cabanon Vertical)의 도서를 참고하였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의 실행도구와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였으며, 최근 많은 도시사업에서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의 변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은 1)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2) 건설과 철거기간 동안 비어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가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프로젝트 수행 단체가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을 보다 잘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지는 철거전에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을 추진하고, 비어있는 공간은 건설 이전, 철거하는 지역은 철거하기 전에 해당 공간의 활성화를 목표로함

- 사업기간은 3개월에서 4, 5년도 가능
- 각각의 도시는 환경에 따라 테마를 정해서 이 공간을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사용하게 될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는 까바논 벡티칼(Cabanon Vertical)과 같은 단체들과 작업을 함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의 또다른 목표는 도시공간이 어떻게 쓰일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임, 재건축과 정비를 하는 다양한 옵션을 실험하는 기간이며 해당 공간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진화할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절차)** ANRU에서 주도한 공동워크숍을 통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절차를 마련
 - 1) 분석 : 장소의 환경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추진에 적합한지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문제를 검토
 - 2) 논의 : 사업의 목표를 찾는 작업으로 빈공간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논의 개시
 - ① 장소를 점유를 해서 축제를 일시적으로 활성화는 것
 - ② 미리 공간의 사용을 예측을 하는것(쉼터나 놀이터 등을 예측해보는 단계)
 - 이러한 활동들은 실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기간 동안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도 진행하고 있음
 -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작업은 주민참여와 소통의 과정인데 가장 큰 목표는 주민을 프로젝트 안에 끌어들여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목적이 있음
 - 3) 기획 및 실행 : 누가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시기임, 지자체나 사회단체, 아티스트가 수행을 할지, 예산은 어디서 얼마나 조달할지, 기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
 -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며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에 할당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현실임에 따라 대부분 공공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의 소비활동으로 인한 매출을 예상하기 어려운 지역임에 따라 레스토랑 등 운영조직에 공공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음
 - 5) 사업 종료 :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사업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개발사업에 리스크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도 원하지 않는 경향임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은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 전에 진행되기에 종료시점이 연기되면 개발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침
 - 6) 사업 평가 :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과정을 수행, 평가의 목표는 당초 제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주민이 만족하였는지 등이며, 추진 과정 중 수정할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 등 질문을 통해 사업평가를 수행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규정)** 점유 방식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큰 건물안에 미술관을 임시로 운영할 경우 소방 관련 규정을 검토, 거주공간의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공간특성별 충족해야하는 법규를 검토하고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참여 주체)** 토지 소유주, 민간주체, 사용자(거주자, 상인 등)
 - 수행주체는 앞으로 공간을 쓸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며, 선별과정을 거쳐(공고 등) 프로젝트 개요를 제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계약을 체결
 - 지자체는 소유주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본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
 - 지자체 내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작업을 추진, 행정부서에서도 공간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부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이 협력하며, 도시재생 부서는 트랜지셔널 어바니즘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검토함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사업 계약)** 수행 민간주체는 지자체와 바로 계약을 하는 진행
 - 4만 유로 이하 프로젝트의 경우 지자체와 수행주체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는 건설비를 제외한 용역비(프로젝트 기획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해당
 - 4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는 공고를 통해 선정하며, 4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는 예산 내역에 대한 교섭을 하는 과정이 포함됨
 - 프랑스 내에서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프로젝트는 혁신사업(Innovation project)로 분류됨에 따라 10만 유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내년에는 변경 될 수도 있음
 - 지자체가 우선 사업대상지를 계획하여 해당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의 방향을 담아 공고를 올리며 지자체가 수행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추진
 -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임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선정평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사용
 -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수행, 사업대상지 소유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지자체 소유가 아니어도 지자체가 담당, 본 프로젝트가 도시정비사업에 얼마나 도움되었는가를 평가
 - ANRU에서는 평가하지 않으며 지자체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성과평가)**
 - 주로 사회적 부분의 개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정량평가(거주민 및 방문객을 포함한 방문객 수 등), 정성평가(방문한 사람들이 왜 왔는지,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 등) 모두를 수행
 - 평가를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수집하는 효과도 있음
 - 평가는 사업종료 후 1회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 중간에 평가를 하기도 함
 - 성과평가의 경우, ANRU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의무임, 평가방식은 자율(보고서 작성, 연구, 설문조사 등),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에 대해서만 수행
 - 평가는 보통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수행단체에 용역처럼 위탁할 수도 있음(지자체 마다 다름), 이상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예산 계획시 성과평가 예산을 산정하는 거싱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예시)

- (예시 1) 주거지 재개발지역에 코워킹 공간 운영

- 사회주택업체, 시민단체, 자영업자가 협력하여 코워킹 공간(1유로/1일)을 조성(24시간 개방)
- 코워킹 공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의 장점이 있음
- 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여러 곳에서 실행하고 있음

- (예시 2) 노후 사회주택 철거 후 공원화

- 노후 사회주택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하여 공원화 진행
- 수종 선정시 이후 신규 주택 조성에 방해되지 않는 품종을 선정
- 제거가 어려운 수종은 제외

- (예시 3) 식물 재배공간으로 일시적 활용

- 주민들과 주거지 내부에 작은 나무들을 심고 키워서 지역의 보행로를 따라 이식
- 일시적 활용되는 공간은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주민 커뮤니티 강화와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

- (예시 4) 유희화된 역세권 병원건물 임시 활용

- 리옹역 옆 병원 건물로 활용되던 건물을 이민자나 홈리스를 위한 숙소로 활용
-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숙소, 음식점, 문화관 등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 이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국외협력 관련

• (ANRU의 국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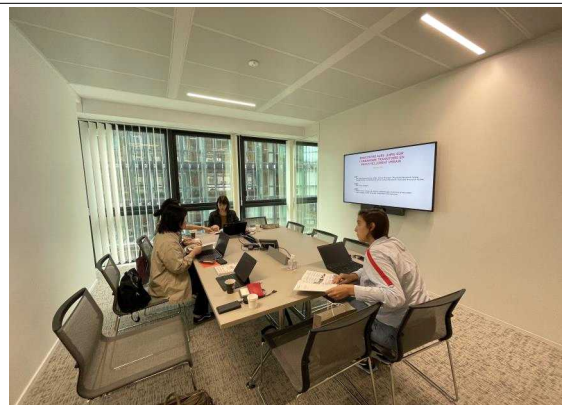
- 1)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 프랑스 개발청(AFD) 사업에 ANRU가 참여하고 있음, 현재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ANRU가 트랜지셔널 어바니즘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사업 참여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가량임
- 2) 국외기관 협력 : ANRU가 직접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보통 문서를 작성하여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음, 파트너십에 포함될 내용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가능할 경우 각 기관의 예산을 통해 양국 답사도 할 수 있음

• (ANRU의 국제협력 관심 분야)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해외동향

- 최근 PNRU 프로젝트에 '탄력성 있는 지역'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레질리언스로 접근하고 있는 해외의 대응 현황이 궁금함
- ANRU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역은 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임, 경제적 위기, 환경적 위기, 위생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임, 이러한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하거나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새로운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제협력에 관심이 있으며, 이에 AURI의 레질리언스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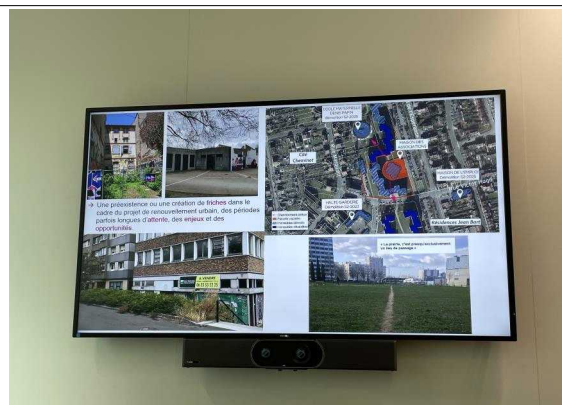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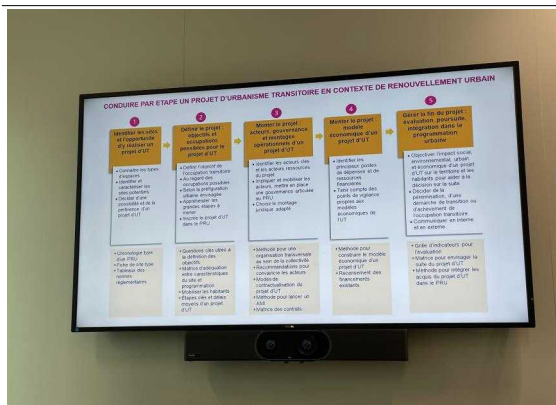
ANRU 건물 외부 (연구진 촬영)



ANRU 건물 내부 및 회의전경 (연구진 촬영)



회의전경 (연구진 촬영)



ANRU 발표자료 (연구진 촬영)

2. (현장조사·면담) Casure 및 Plateau Urbain

- 일시 : 2023.8.28.(월) 14:00-18:00
- 장소 : 파리 Casure 사업지
- 주요안건
 - Casure 조성을 위한 사회혁신실험 내용
 - 추진주체인 Plateau Urbain의 주요 사업과 역할
- 참석자
 - (원외) Sylvan White(Plateau Urbain 공간사업 책임자)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 Plateau Urbain 면담

- **(설립)** 2013년 관련 주체의 연합체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
- **(목표)** 시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축물과 공간을 사용 가능한 건축물과 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성을 제고
- **(비전)** 창의성으로 유휴공간을 해결하자, 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움직이자, 새로운 활용을 위해 대화의 장을 열자
- **(인력)** 약 80명
 - 3년 전에는 30명 수준이었으나 Casure 프로젝트로 인해 기업 규모가 확대되었음
- **(클라이언트)** 공공 50%, 민간(은행, 보험사, 부동산회사) 50%
- **(프로젝트 현황)** 프랑스 내 20개 프로젝트를 진행
 - 11.5만㎡의 공간을 운영
 - 15개 프로젝트는 일드프랑스 지역, 나머지는 마르세유, 리옹, 보르도에 위치
- **(프로젝트 수주)** 회사가 유명해지기 이전에는 사업모델을 보여주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프랑스 내에서 유명해짐에 따라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프로젝트 의뢰 요청의 90%는 거절하고 있는 상황
 - 현재는 임대료는 없이 건물주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고를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음
- **(주요 프로젝트)** Espace Voltaire
 - Espace Voltaire는 2020년 9월 캐나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뢰로 시작
 - 해당 프로젝트는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보전을 위해 보험회사가 의뢰
 - 용도가 변경되기 전 비어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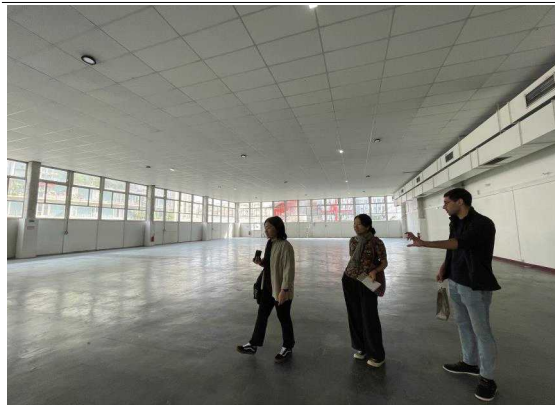
- **(프로젝트 수행방식)** 크게 2가지로 구분할수 있으며 계획수립, 실행으로 구분 가능
 - 1) 분석연구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관련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다른 업체를 위해 계획이나 분석, 컨설팅을 하는 방식
 - 2)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 : 지역분석을 통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건물단위 사업추진 내용 설정, 예산 설정 등)
- **(공간운영 기간)** 계약이후 최소 18개월 진행, 공간을 운영하면 연장하는 경우가 많음
 - 기획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지역분석 포함)
- **(공간위탁 사유)**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건물이 비어짐에 따라 범죄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응하여 부동산 소유주체 또는 개발사업 추진주체는 Plateau Urbain 같은 업체에 비어있는 기간 동안 활성화 또는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관리를 수행
 - 1)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 공사를 시작하려면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청은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을 좋아함, 시청과 수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인어가 과정에 도움이 됨
 - 3) 사업주체의 사회공헌적인 부분도 약간은 포함됨
 - 사업추진시 허가를 받는데 2~4년 소요, 승인 이후에도 민원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용역비용)** 1년 5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2년에 80-90만 유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할 경우 280만 유로 가량
- **(가치상승)**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시설의 가치상승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 켄트리피케이션을 경계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작업 자체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상업성을 경계하고 있음
- **(신규사업 모델)** 공간 상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
 - 파리 등 주요 도심외곽의 비어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임
 - 파리의 경우 파리 중심부는 부동산이 활황이나,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25~30% 가량 공실인 상황
 - 2년 동안 공간을 운영하고 행사를 개최하여, 유동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이로 인해 다른 상점들도 주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계획
 - 2년 기간에는 소액으로 공간을 임대하고 2년 이후에는 제값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는 이를 '트램펄린 효과'라고 부름 → 초기 입주 단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남은 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 → 활성화 이후에는 원래의 임대료를 낼수 있게 하여 고객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자 함

□ Cesure 사례

- **(개요)** 2년간의 사회혁신실험을 통해 조성한 창작센터로 구 소르본 누벨 상시에 대학 캠퍼스를 민간기업인 Plateau Urbain과 Yes we camp의 협력으로 운영하는 사례
 -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기간(약 2년)에 임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
- **(현황)** 2022년 7월 개관하여 200여개 창작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5,000m²
 - Plateau Urbain 직원 총 15명이 운영
- **(입주자 선정)** 700여 명의 신청자 중 115개 기업 및 기관이 입주하였으며, 추가적인 입주자 발굴을 통해 총 230개 기관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입주자 모집은 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며, 10여 년간 쌓인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
- **(사업구조)** 건물은 무료로 임대 받으며, 입주자들에게 돈을 조금씩 받아 월세의 개념이 아닌 참여 개념으로 운영, 이로써 파리의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회피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증명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본 공간 이용의 장점임
 - 임대료는 한달에 1회씩 납부하며, m²당 20유로로 책정(파리의 일반적인 임대료는 m²당 60유로로 파리 시내에 비해 1/3 저렴)
 - 낮은 비용 덕분에 평소 활동이 어려웠던 단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음
- **(입주현황)** 현재 사용 중인 기관 및 단체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며, 시민 단체, 아티스트, 젊은 사업가, 사회적 경제 기업, 녹음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작아 1~2명 정도 작은 규모의 회사들 아니면 단체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큰 공간이 많아 한 개 조직이 2~20명 정도의 인원까지 고용할 수 있음
 - 공간의 사용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연결되고 주민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생의 공간을 조성하는 의미도 있음
- **(지역 연결)**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 및 지역 주민들 간의 연결을 촉진하며, 지역 주민들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의의)** 비워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미래를 예측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활동을 수행
 - 이 창작센터는 파리의 다양한 단체 및 기관에게 협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계획)** 사업승인이 결과적으로 작년 12월에 났는데 실행을 하는 데 2~3개월이 걸렸고 3월이 돼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자재비가 다 상승을 해서 예산으로가 불가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다 짜니까 아마 올해 연말이나 가능할 거다라고 함



Cesure 외부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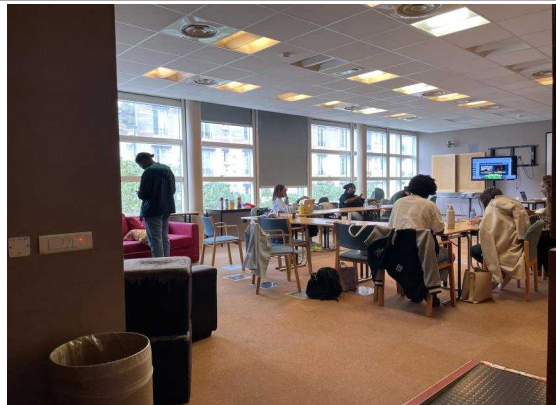
Cesure 내부 다목적 공간 및 레스토랑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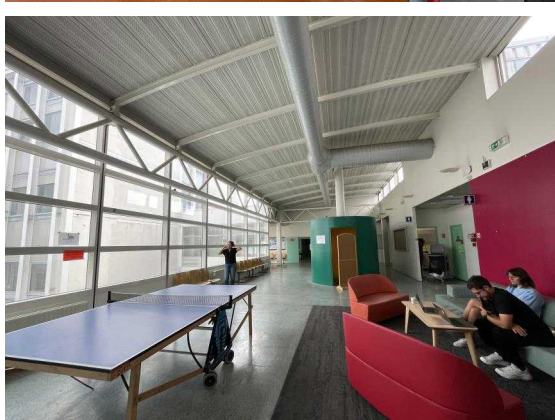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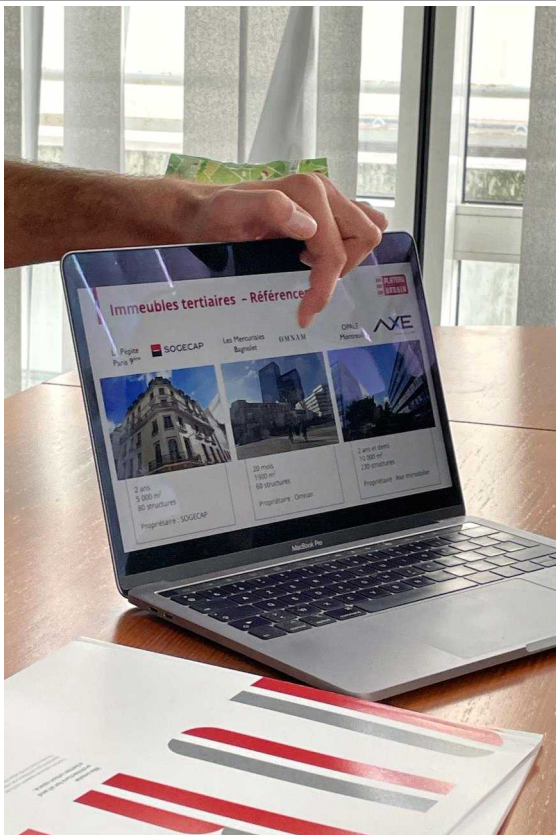
외부 및 오픈스페이스 (연구진 촬영)



입구 및 복도 (연구진 촬영)



내부 사무실 및 공용공간 (연구진 촬영)



Plateau Urbain 사무실 내부 및 회의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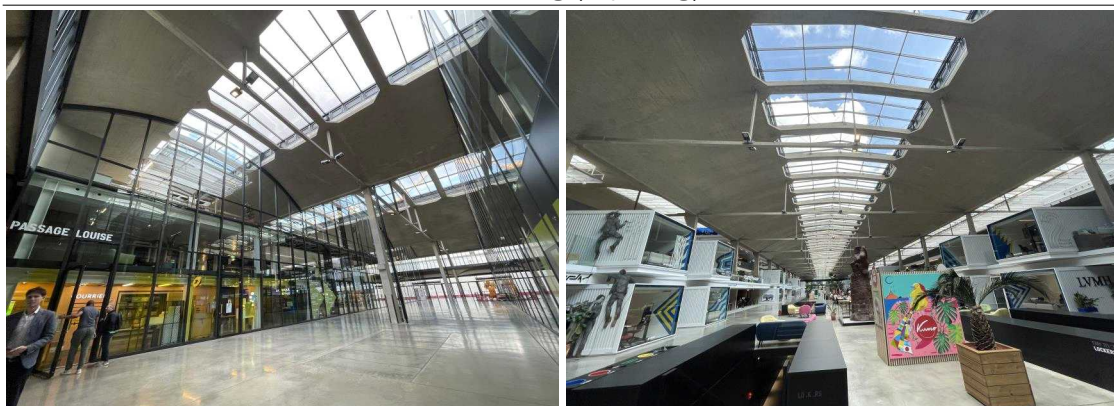
3. (현장조사) Station F

- 일시 : 2023.8.28.(월) 18:00-19:00
- 장소 : 파리 Station F
- 업무 : 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조사, 사회혁신실험을 활용한 공간기획 현황 등 파악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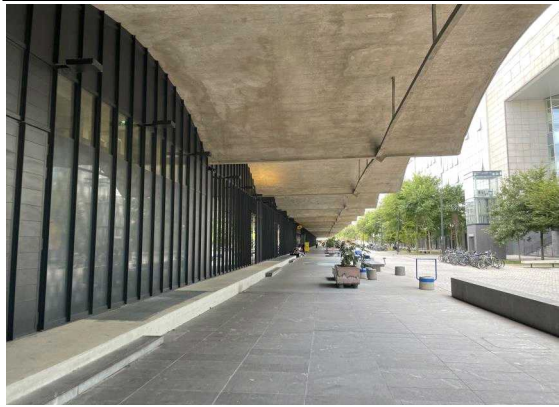
- **(배경)** 프랑스 통신사 창업가 자비에 니엘이 2억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로 뭉치고 일관된 경험 제공을 목표로하여 조성
- **(개요)** Station F는 파리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로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
 - 1929년 조성된 철도 창고를 리모델링한 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로 조성 초기 사회혁신실험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 설정하고 2017년 6월에 개장
 - 초기 공간운영 실험을 통해 일부 공간의 기능을 설정
- **(운영)** 라 프렌치 테크(프랑스 스타트업 네트워크 프로젝트)
- **(규모)** 면적 34,000㎡(업무공간 3천여개, 스타트업 1천여개 입소)
- **(시설현황)** 사무공간, 공용공간, 회의실, 카페, 푸드코트(La felicity)



Station F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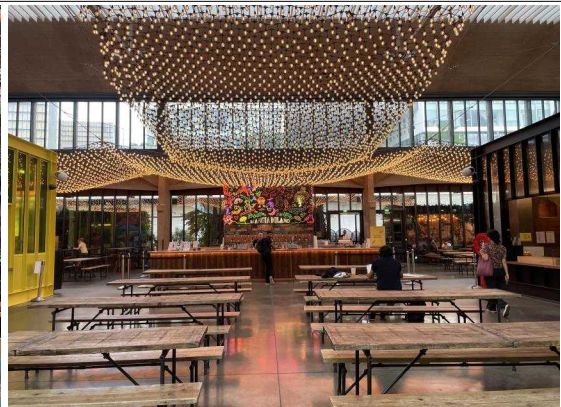
Station F 내부 (연구진 촬영)



Station F 외부 (연구진 촬영)



La felicità 내외부 (연구진 촬영)



La felicità 내부 (연구진 촬영)



La felicità 내부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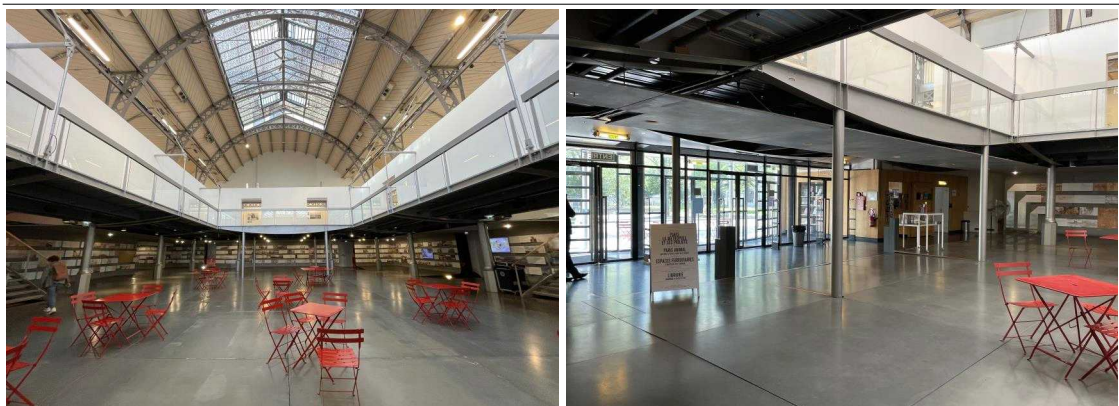
4. (현장조사) Pavillon de l'Arsenal

- 일시 : 2023.8.29.(화) 10:00-12:00
- 장소 : 파리 Pavillon de l'Arsenal
- 업무 : 프랑스 사회혁신실험 관련 도시건축 연구 현황 조사 및 자료 구입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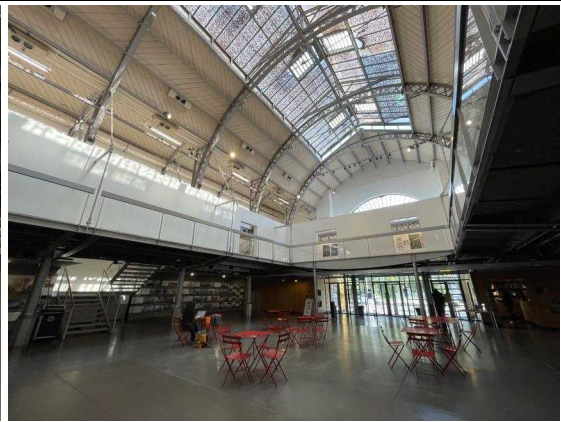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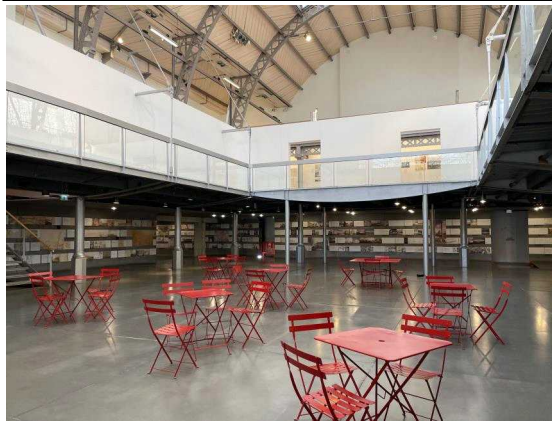
- **(배경)** 1879년 개인 미술 소장품 전시를 위해 조성된 후 식료품 회사, 백화점을 거쳐 1954년 파리시가 소유, 1988년 12월 개관
- **(개요)** 파리에서 운영하는 도시건축 연구 및 전시 센터로 유럽내 첫 번째 도시건축 연구센터
- **(역할)** 파리의 건축과 도시계획 역사와 현재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 도시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역할을 수행
 - 건축전시, 워크숍, 강연, 설명회 및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활용됨
 -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행사를 주최하며 일반 대중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하고 자체 전시를 진행
 - 전시 내용을 정리하여 도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내부 서점에서 판매
- **(면적)** 2,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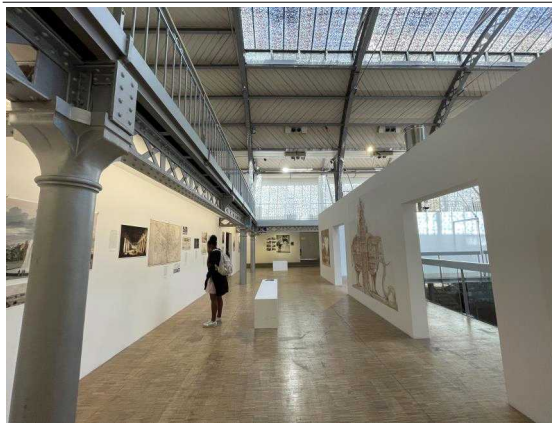
Pavillon de l'Arsenal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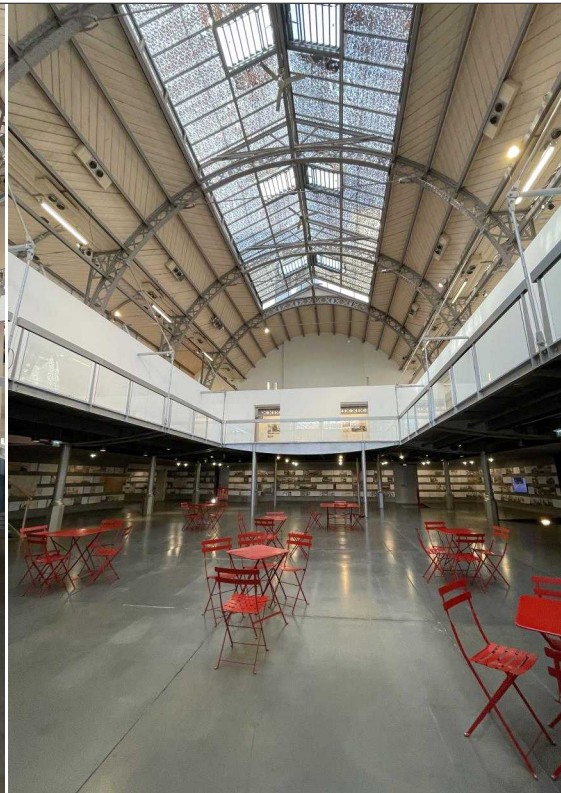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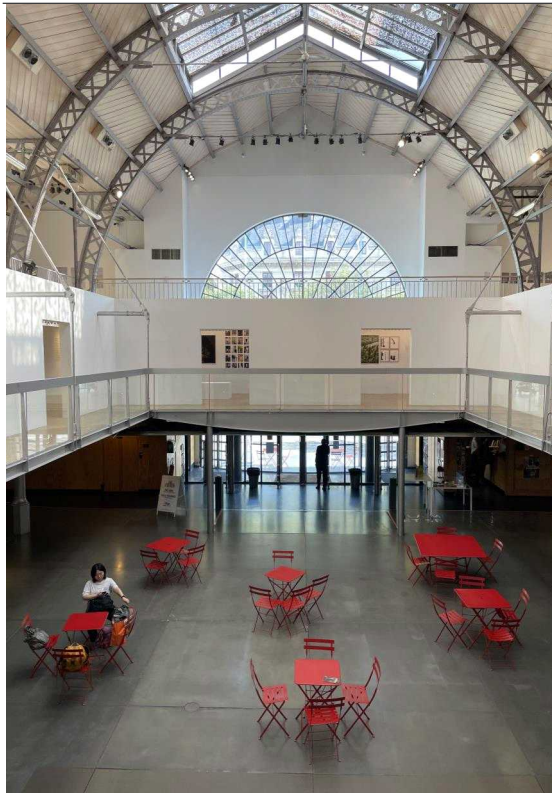
내부 전경 (연구진 촬영)



내부 전경 (연구진 촬영)



내부 현황 (연구진 촬영)



Pavillon de l'Arsenal 내부 전경 (연구진 촬영)

5. (현장조사·면담) Les Arceaux 및 Cabanon Vertical

- 일시 : 2023.8.30.(수) 10:00-12:00
 - 장소 : 몽펠리에 Les Cevennes 사업지
 - 주요안건
 - Les Cevennes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추진주체의 역할과 공공지원 현황
 - 참석자
 - (원외) Olivier Bedu(Cabanon Vertical 예술감독)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 * 당초 Parenthese 담당자 면담 예정이었으나, 담당자 일정 변경으로 사업에 참여한 다른 주체를 면담

- (개요) Les Arceaux는 몽펠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8세기에 조성된 시설로 급수탑부터 14km에 걸쳐 연결된 시설이며 유적임, 본 프로젝트는 유적지 주변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오픈스페이스 조성 전 가설건축물로 공간 활용을 실험해보고자 추진
 - 2023년 5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로 완료되지 얼마되지 않은 프로젝트임
- (입지) 몽펠리에에는 프랑스에서도 부르주아 도시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며, 사업지는 시내와 바로 인접한 양호한 주거지 근처에 위치
- (주체) 공공공간 조성 주체는 BASE라는 조경회사이며, 가설건축물 조성은 Parenthese 참여
- (목적)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로 시작
 - 2023년 5월에 시작한 시범프로젝트로 공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용하고 활성화되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임
 - 영구적인 시설물로 대체되는 것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프로젝트의 목적이며 빠르게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몽펠리에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대한 편
- (예산) 28만 유로(디자인비, 건설비 포함)
- (기간) 2022년~2023년



Les Arceaux 전경 (연구진 촬영)



시설물 전경 (연구진 촬영)



Cabanon Vertical 회의 및 답사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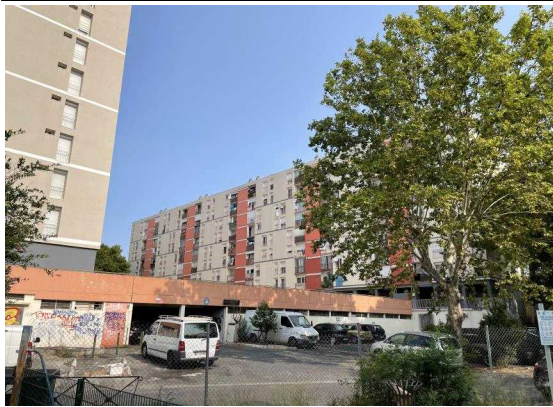


사업 투시도 및 도면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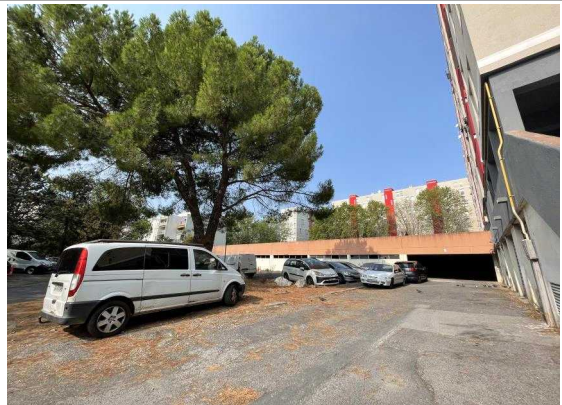
6. (현장조사·면담) Les Cevennes 및 Cabanon Vertical

- 일시 : 2023.8.30.(수) 10:00-12:00
- 장소 : 몽펠리에 Les Cevennes 사업지
- 주요안건
 - Les Cevennes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추진주체의 역할과 공공지원 현황
- 참석자
 - (원외) Olivier Bedu(Cabanon Vertical 예술감독)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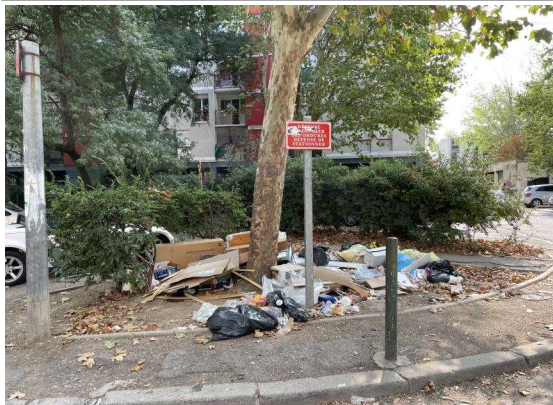
- (개요) 본 사업은 1970년대 조성된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해 공공공간을 임시 조성한 사례임
 -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기간은 12년,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은 3년 계획
 - 본 주거지는 1966년 조성을 시작하여 1978년 추가 개발을 진행
 - 중산층 거주지이나 70년대 조성된 건물로 낙후된 시설이 많음
- (주체) Cabanon Vertical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을 총괄하고 건축사와 직접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참여인력은 총 8인 가량
- (사업특징)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회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본 사업지는 모두 자가소유라는 특징이 있음
 - 공공에서 일부 공간을 수용하고자 함
 - 프랑스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원래 환경을 유지하고 철거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음, 공간연결성을 개선하고 공공공간을 조성하려는 추세임
 - 철거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임차인의 경우 이주가 어려움에 따라 철거비율을 낮게 하려는 경향임, 프랑스에 사회주택 수는 많으나 입주를 위해서는 6-7년 대기가 기본임
 - 야외 공간은 공동의 소유라 관리가 안되는 경향이 높음, 그럼에 따라 나라에서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건물 수선은 공공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정도이나 외부공간은 공공에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음
- (사업내용) 1차년도 사업 추진시 한 것은 도로변 공간을 주민이 모일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임, 지역관찰을 통해 5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을 주민과 논의하여 선정
- (사업기간) 2022년 9월에 분석을 시작하여 2023년 6월에 설치 종료, 약 9개월 소요
- (예산) 5.5만 유로(기초조사, 계획, 디자인, 시공), 7천 유로(주민참여프로그램)
 - 후속사업에 4.5만 유로가 추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몽펠리에에서 사업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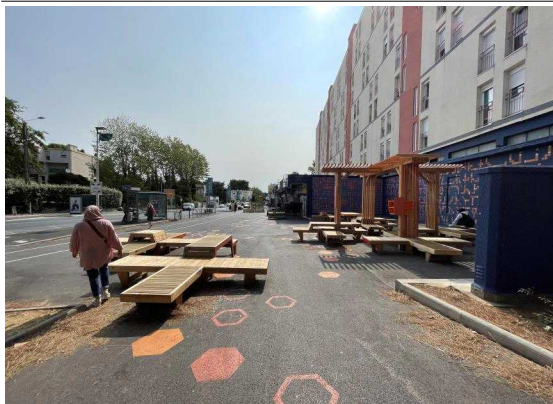
Les Cevennes 단지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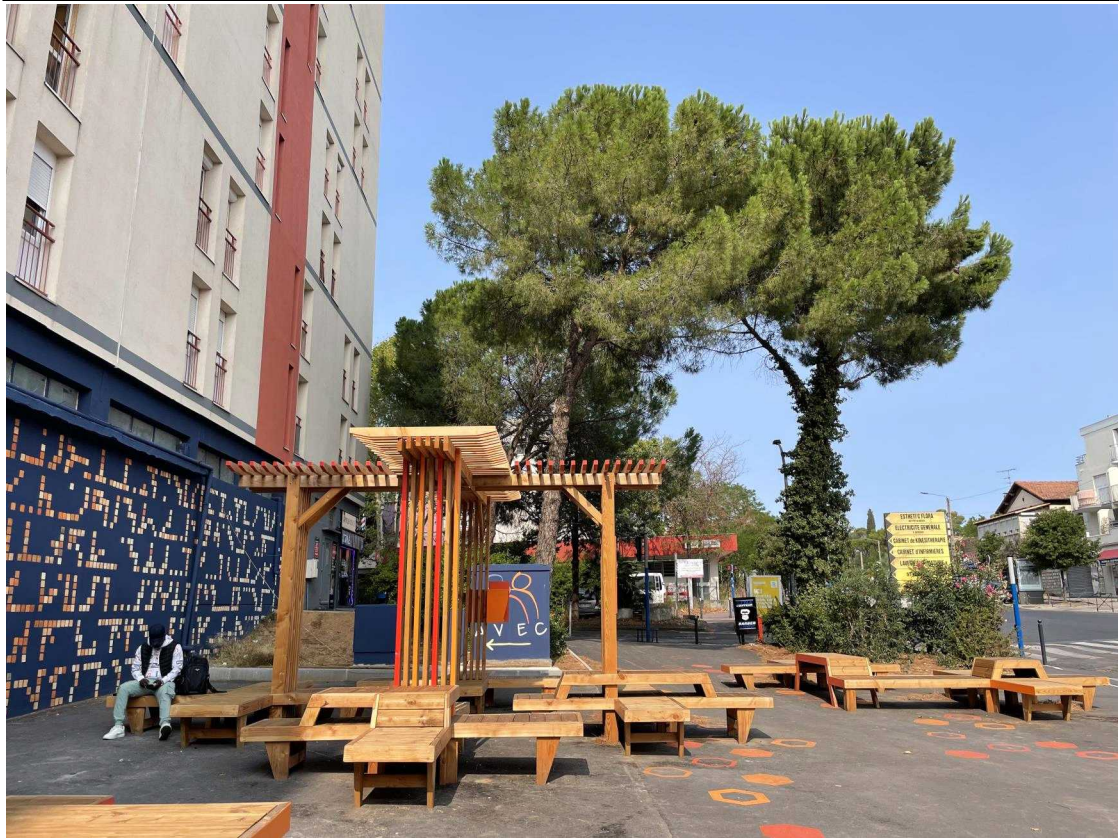
Les Cevennes 단지 외부공간 (연구진 촬영)



외부공간 전경(쓰레기 및 차량 방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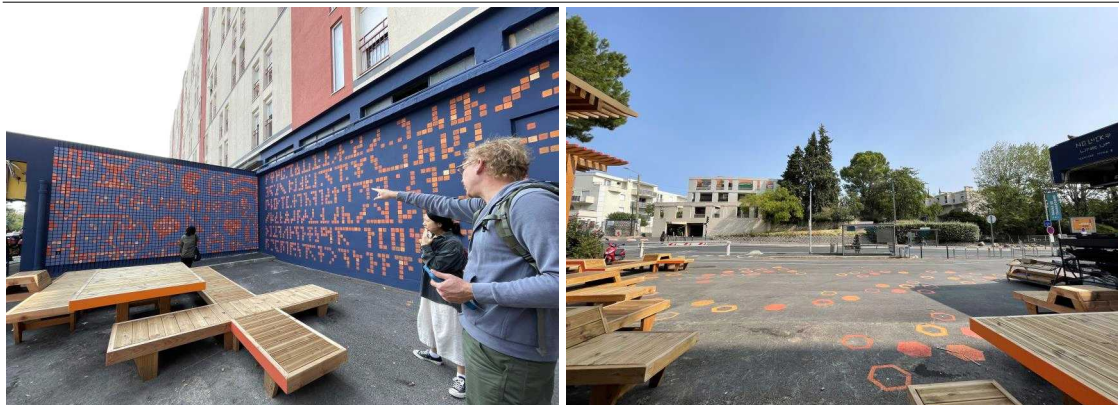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 (연구진 촬영)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 전경 (연구진 촬영)



시설물 전경 및 추진주체 면담 (연구진 촬영)



벽면 디자인 및 바닥 디자인 (연구진 촬영)

7. (현장조사·면담) Barriol 및 Cabanon Vertical

- 일시 : 2023.8.30.(수) 15:00-19:00
 - 장소 : 아를 Barriol 사업지
 - 주요안건
 - Barriol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추진주체의 역할과 공공지원 현황
 - 참석자
 - (원외) Olivier Bedu(Cabanon Vertical 예술감독), Chloe Lechalupe(Cabanon Vertical 매니저)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
- (개요) 아를 외곽 사회주택 단지 내 공공공간 정비를 위해 사회혁신실험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추진(저소득층, 이민자 주거지)
 - (기간) 2021년~계속 (사회주택 업체에서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카바논에 의뢰)
 - (예산) 3만 유로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계획을 ANRU에 제출했으나 거절, 사회주택 업체에서 프랑스 사회혁신기금에 지원을 하여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았으며, 사회주택업체의 자체 비용, 지역단체의 후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 사회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조성
 - 1970년대 바히올의 사회주택이 조성되고, 대규모 단지 내 중정의 넓은 공간이 제공되었지만, 실제 주민의 이용도가 낮아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 더 많은 벤치를 통해 더 많은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에게 적합하고 활동과 유쾌함을 생성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성
 -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도시 가구를 상상하고 만드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문제인식에서 제기되었던 더 많은 벤치와 그늘을 위해 좋은 장소를 찾는 지역조사를 진행
 - (향후 계획)
 - 2023년 초 바히올의 얼굴을 바꾸는 대규모 개조프로젝트를 ANRU를 주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1억 유로(€116M)가 투입될 예정
 - 관련주체 : 공동 자금 조달 ANRU, 사회주택 소유, Arles 시, ACCM, Department, Region, CDC, Caf, ANCT
 - 베리홀과 이웃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시행될 예정이며, 주민과 앙튀 사이 협의가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는 2028~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
 - 바히올 사업지의 공공시설물의 주민 선호에 따라 유지 및 철거가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시설물의 존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arriol 단지 외부 전경 (연구진 촬영)



Barriol 단지 내 중정 (연구진 촬영)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벤치, 공공공간 조성) (연구진 촬영)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벤치) (연구진 촬영)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벽면 도색)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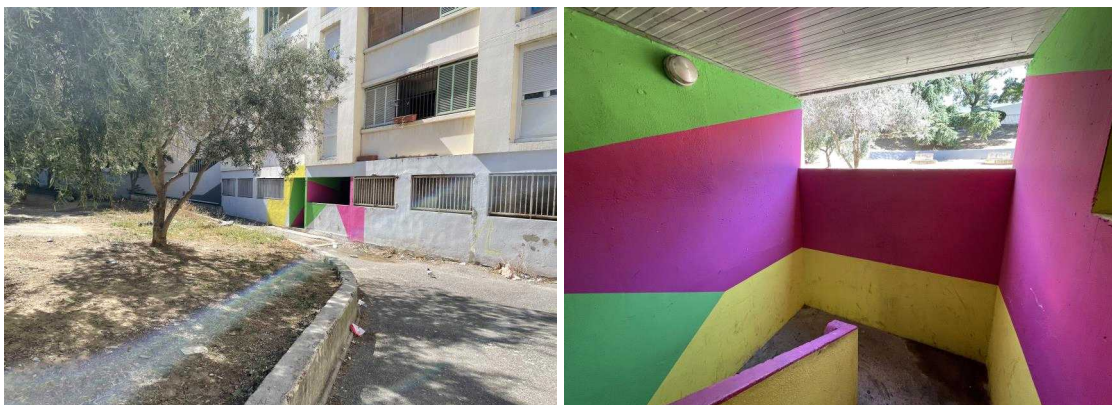
8. (현장조사) Airbel

- 일시 : 2023.8.31.(목) 09:00-11:00
- 장소 : 마르세유 Airbel 사례지
- 업무 : Barriol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추진주체의 역할과 공공지원 현황
사회혁신실험을 활용한 공간기획 및 시설조성 현황 파악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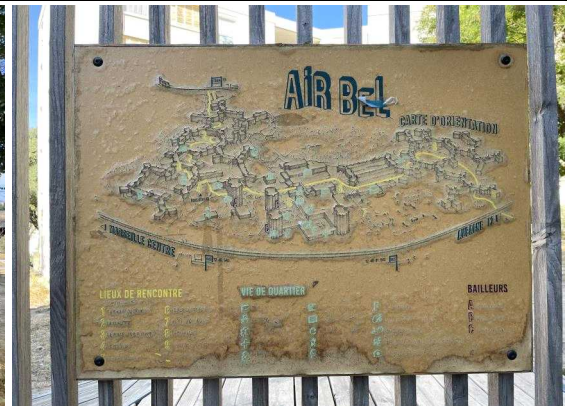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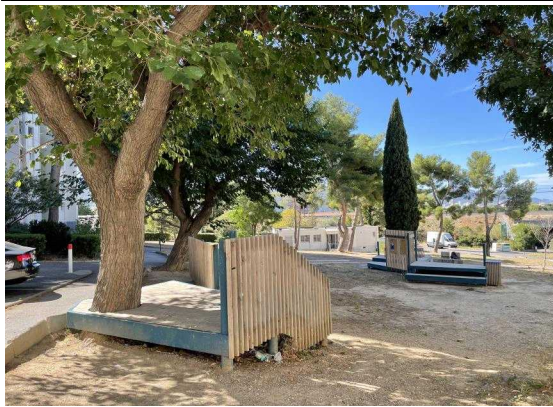
- (개요) 새로운 도시리뉴얼 프로그램(NPNRU) 사업 추진지역으로 1970년대 조성된 임대주택(1천2백 가구 거주) 단지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해 사회혁신실험 추진
- (기간·예산) 1단계 : 2017년 ~ 2020년, 14만유로 / 2단계 : 2022년 ~ 2025년, 14.4만 유로
- (특징) 임대주택 관리업체 3곳과 추진주체(Cabanon Vertical) 협력하여 프로젝트 추진
- (사업내용) Way finding, 공공공간 조성
 - (Way finding)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 벽면을 도색하여 길찾기를 쉽게 하고, 우범지대(마약 등)의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
 - (공공공간 조성) 유휴공간에 시설물을 조성하여 외부활동을 활성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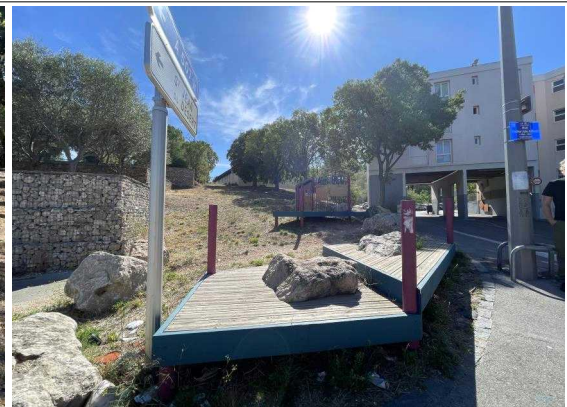
Airbel 단지 전경 및 외부 공간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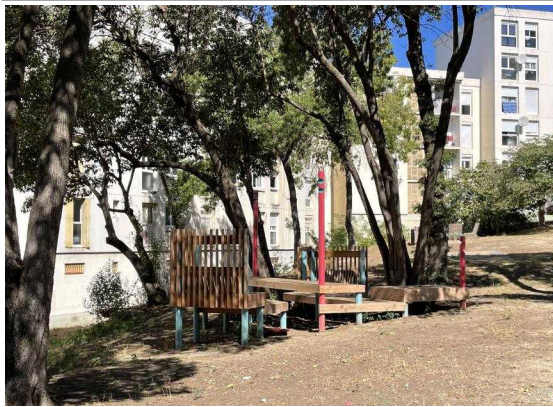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벽면 도색)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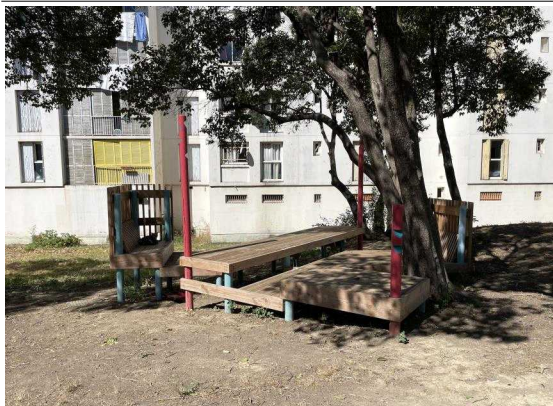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공공공간 및 시설물) (연구진 촬영)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공공공간 및 시설물)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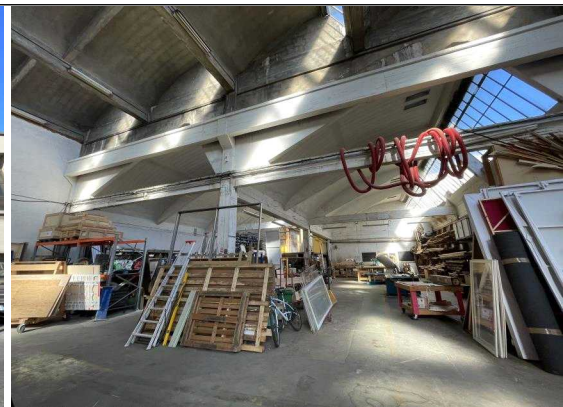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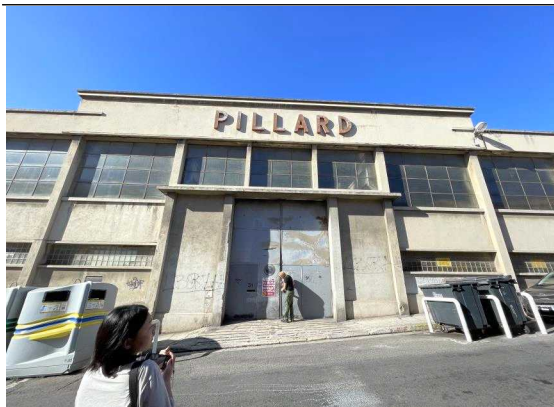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공공공간 및 시설물)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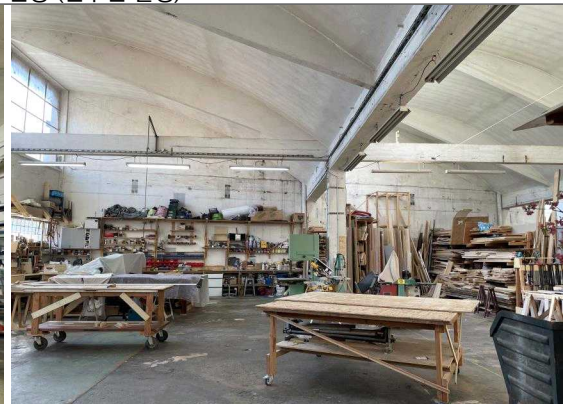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결과물(공공공간 및 시설물) (연구진 촬영)

9. (현장조사·면담) 8 Pillards 및 Cabanon Vertical

- 일시 : 2023.8.31.(목) 11:00-13:00
- 장소 : 마르세유 8 Pillards 사례지
- 주요안건 : 사회혁신실험 참여 주체 인터뷰, 협업구조 및 공간 활용 현황 조사
- 참석자
 - (원외) Olivier Bedu(Cabanon Vertical 예술감독), Chloe Lechalupe(Cabanon Vertical 매니저), Emilie Jaguin(Cabanon Vertical 디자이너)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 (개요) 구 히터공장을 예술·건축·도시 창작자들이 직접 활성화한 공간으로 사회혁신실험 추진 주체의 거점이자 전문분야별 협업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 (입주단체) Les Pas Perdus(조형예술가 집단), Cabanon Vertical(도시건축 창작단체), A Plomb(예술가 집단), F.A.I.R.E(다분야 창작가 및 제작자 집단), Bureau des Guides GR2013(도시연구단체), Collectif ETC(도시건축 창작단체), En Chantier(친환경-지속가능성 요리단체), La Cale(목수 집단), Studio pi(사운드 창작단체) 등 16개 주체가 입주
- (면적) 4,000㎡ (2019년부터 운영된 시설로 민간소유 건물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
- (비용) 1달에 35백 유로를 납부하고 있으며 입주단체가 면적 비율로 부담하고 있음(㎡ 당 2유로, 공용공간 관리비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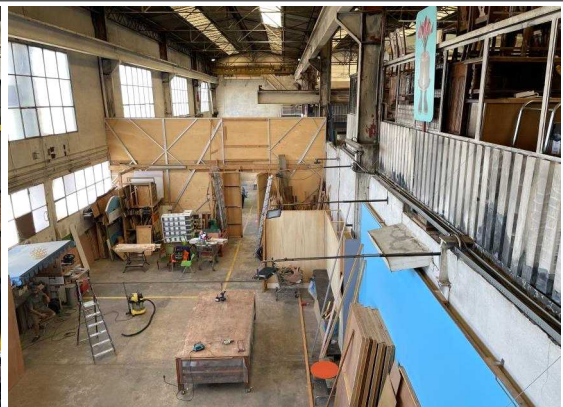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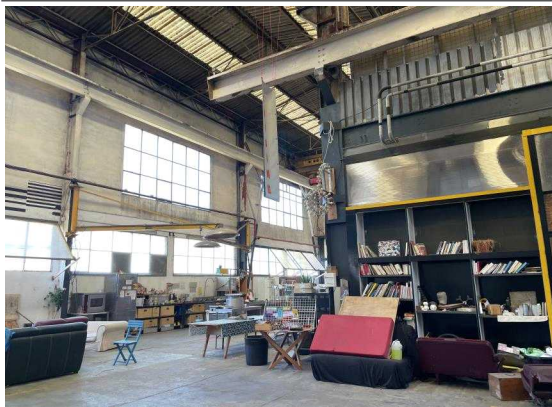
8 Pillards 내외부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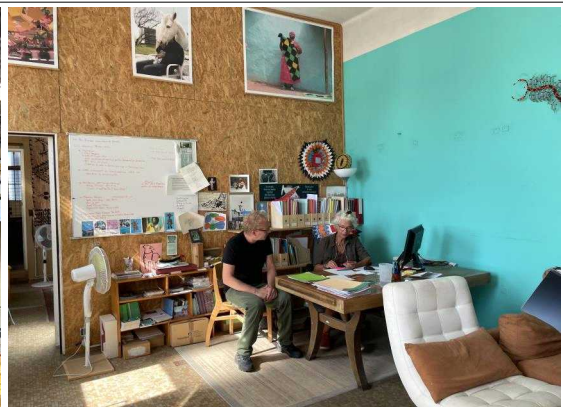
내부 전경(목공소) (연구진 촬영)



내부 전경(복도) (연구진 촬영)



내부 전경(공용공간 및 작업장) (연구진 촬영)



내부 전경(2층 창고 및 사무실 내부) (연구진 촬영)

□ Cabanon Vertical 사업 현황 및 방향

- (설립) 2001년 올리비에 브뒤 설립
- (인원) 7~8인
 - 상시 고용인력(5일) 2인, 보통 2.5일~4일 근무
- (급여) 시간당 14유로(4일 근무시 월급은 약 14백 유로)
 - 적은 급여로 지속적인 고용에는 한계가 있음, 올리비에의 경우 다른 일도 하고 있으며, 하나의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구조임
 - 직원의 경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게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 (사업방향)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외 공간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과거에는 프랑스에서도 소수의 방법론이었으나, 까바농 백티칼의 첫 프로젝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
 -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론에 기반하여 방법론을 다듬어가고자 함
- (해외협력) 현재 프랑스 해외원조사업에 참여하여 아프리카에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관련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어촌뉴딜사업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한국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싶음



Cabanon Vertical 면담 전경 (연구진 촬영)



Cabanon Vertical 사무공간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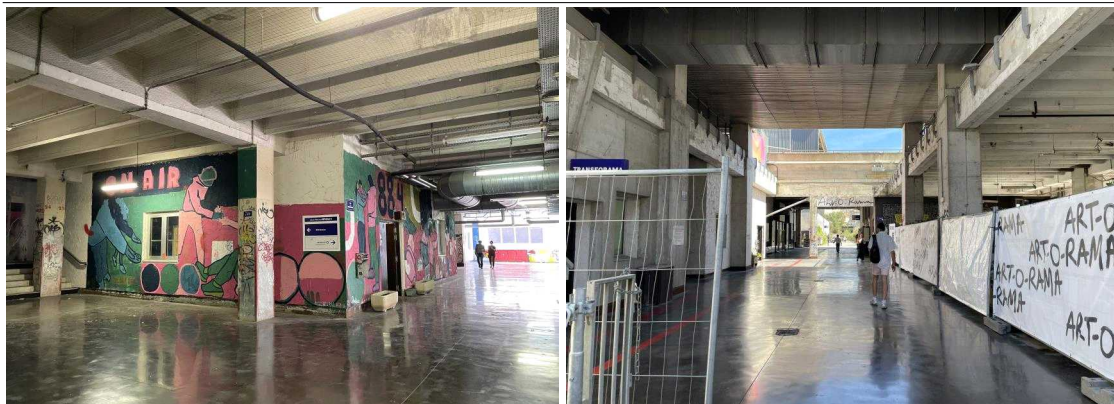
10. (현장조사) Friche la belle de mai

- 일시 : 2023.8.31.(목) 15:00-18:00
- 장소 : 마르세유 Friche la belle de mai
- 업무 : 사회혁신실험을 통한 공간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개요) 구 담배공장을 재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회혁신실험을 통해 공간 프로그램 설정
- (과정) 1886년 조성된 담배공장이 1990년 폐업, 이후 예술가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Systeme Friche Theatre)를 시작,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가 장누벨이 프로젝트 의장을 맡으며 도시계획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공공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2007년 마르세유시가 부지를 구입하여 예술가 협동조합(공동이익협동조합(SCIC, 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ctif))에게 45년간 장기 임대하여 운영
- (규모) 4.5만㎡(70여개 창작단체 입주, 5개 공연장, 전시실, 교육센터 등 입주)
- (방문객) 연간 45만명 방문
- (프로그램) 예술 관련 행사, 전시, 공연 등을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
 - 연간 600여개 문화프로그램 진행



Friche la belle de mai 입구 및 전경 (연구진 촬영)



내부 및 복도 전경 (연구진 촬영)



배치도 (연구진 촬영)



레스토랑 전경 (연구진 촬영)



공용공간 및 서점 (연구진 촬영)

11. (현장조사) Street Corner

- 일시 : 2023.9.1.(금) 9:00-11:00
- 장소 : 마르세유 Street Corner
- 업무 : 사회혁신실험을 통한 시설조성 현황 및 이용행태 파악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개요) 유럽 현대미술 비엔날레 사무국이 마르세유 시내에 설치한 공공시설물로 주민 인터뷰를 통한 장소 선정과 디자인 진행, 임시설치물이었으나 마르세유시에 기증하여 영구 설치
- (주체) Cabanon Vertical



Street Corner 설치 전경 (연구진 촬영)



Street Corner 시설물 이용 현황 (연구진 촬영)

12. (면담) L'Adeus의 Maxence Morteau 도시사회학자 · 환경엔지니어

- 일시 : 2023.9.1.(금) 11:00-13:00
- 장소 : 마르세유 L'Adeus 사무실
- 주요안건
 - 프랑스 도시재생사업 사례
 - 프랑스 사회혁신실험의 일반적인 추진 과정 등
- 참석자
 - (원외) Maxence Moreteau(L'Adeus 도시사회학자 및 엔지니어)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AURI), 추민아 통역원

□ 마라마스시 사업 소개

- **(개요)** 마라마스시에서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회주택 단지 재생사업
 - 마라마스시의 의뢰를 받아 사업 추진
- **(규모)** 25.7㎢의 작은 도시이며 약 2.5만명인 인구 거주
- **(지역배경)** 60~70년대 개발된 지역으로 석탄산업에 지역 중심산업으로 성장
 -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획적으로 주거단지를 공급(17개 단지 조성)
- **(사업지)** 마라마스시 사회주택단지
 - 1천여개 가구가 있으며 86%가 사회주택, 2.8천명 거주
 -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민자, 실업자가 모여사는 지역임
 - 2개의 임대주택 업체가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 **(전략)** 4개의 전략으로 사업 추진
 - 1)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 2) 지역이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갖는 것
 - 3) 사회적 혼합을 위해 주거지를 다양하게하고 질을 향상하는 것
 - 4) 동네 시설물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것
- **(자금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은행, 액션로즈먼트(1% 주거 담당단체)
- **(조직)** 5개 전문기관이 협력
 - 아데우스(주민참여, 지역분석, 전체 총괄)
 - 건축가 2인(설계 담당)
 - OPCu(수행계획을 세우고 규정, 진행과정 담당)
 - Setec international(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 FCL(자금 관리, 자금 유치 담당)

• (방법론)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방법론 사용

- 1) 동원 : 주민을 모으는 작업

- 거리사무실, 길거리에서 임시로 차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
- 지역탐방, 지역활동가와 단체를 만나는 행사도 개최

- 2) 분석 : 참여형 워크숍 개최

-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주민과 지역활동가 참여 유도
-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구로 워크숍을 진행(항공뷰 활용, 포스트잇 등), 항상 10여 명의 작은 규모로 행사를 운영(누구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 워크숍은 6개의 테마로 나눠서 진행(공공장소, 시설물과 상업시설, 교통 이동, 직업, 주거 공간, 지역의 생활(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동원력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진행내용을 20페이지 내외로 정리하여 주민 배포

- 3) 전망 : 지역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예측하는 단계

- 주민에게 마법지팡이가 있다면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
-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시를 활용
- 주민에게 예사 사진을 배포하여 고르게 하였고 그것이 왜 좋은지 말하도록 하였음
- 주거 워크숍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작은 개인주택을 많이 선정,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원할 경우에도 기존 건물을 다 철거 할 수 없다고 알림, 작은 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시 질문
- 야외공간, 테라스, 발코니 없어 살면서 벽간 소음이 들리는 문제 때문에 응답이 많았음을 확인
-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음
- 워크숍을 통해 3개의 책자를 만들었음(주거지, 공공장소 풍경 이동성,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시설물)
- 책자안에는 예시가 있어서 워크숍 논의 내용과 결과를 담았음

- 4) 프로그램 : 구체화 과정

- 프로그램화 하는 것에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3d 프린트로 지역 모형 5개를 만들었으며
- 주민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건물을 보고 직접 실행해볼 수 있었던 것임(공간을 떼어내고 공간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음)
- 본 과정에 미라마스시 시장을 초대하여 계획안을 소개하였음
- 5개의 모형으로 종합되었으며, 총 3번의 워크숍을 통해 15개의 모형이 나옴
- 15개 모형의 요소를 체계화하여, 최종적으로 2개의 시나리오로 정리
- 협동하여 작업하는 과정중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음

- 5) 프로젝트 추진 : 모든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
 - 워크숍 3회를 재추진, 제안 내용을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분석하는 워크숍
 - 좋은점, 싫은점,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 하는 과정으로 진행
 -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참여형 과정을 소개
 - 단계가 끝날때마다 주민, 시의원, 기관, 단체를 모아 회의 개최
- (주요 방향) 프랑스의 주민 참여
 - 프랑스에서 주민 참여의 과정을 넣는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계속 있음
 -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하는데 더 많이 자유롭게 하는 편에 속함
 - 프랑스에서는 참여형 접근법을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음

□ 질의응답

-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인상적인데, 이러한 과정이 프랑스에서 일반적인 과정인가?
 - 주민참여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본 프로젝트는 더 오래, 깊이 주민이 참여한 프로젝트임
 - 최근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L'Adeus는 주민참여를 더 많이 하는 편에 속함
 - 본 프로젝트의 경우 주민참여 기간에 4년이 소요되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기다려준 것이 특징임
 - 프랑스에서는 참여형 접근법을 점점 발전시켜가는 추세이고 ANRU 사업은 거의 의무임
 - 이 정도까지 발전된 것은 본 사업이 처음
- 사회주택 재생시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가, 이는 프랑스의 제도 때문인가, 이런 방식이 프랑스에서 일반적인가?
 - 모두 해당됨, 제도에서도 필수적이며 공공지원을 위해 ANRU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프로세스임
 - ANRU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님
- ANRU의 일반적인 역할은? 역할이 절대적인가?
 - ANRU는 프랑스의 낙후된 지역,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개입을 함
 - ANRU는 2004년에 개소하였는데, 당시 주류 아이디어는 사회주택을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일반 주거지를 조성하자는 흐름이었음
 - 그러나 당시 ANRU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방향은 사회적 혼합을 하자 였음
 - 오늘날 까지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사업 시작을 철거부터 고민한다는 것임
 - 본 사업의 경우 사회주택업체의 철거비용의 80%를 ANRU에서 지원, 리모델링의 경우 ANRU는 30%만 지원
 - 정치분야나 연구분야에서 사회적 혼합을 건물로만 할 수 없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반 주거지와 사회주택을 혼합하여 짓는 것이 사회적 혼합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의 최근의 경향임

- 전체 사업기간은?
 - 총 10년 사업이며 주민참여 기간은 2년을 계획했고, 진행 중 수정을 하여 4년으로 연장
- 투입 인력은?
 - 총 4인 투입
- 예산지급시 평가 절차가 있는지?
 - 예산 지급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예산이 지급되고 별도의 심의는 없음
 - 클라이언트와 의견을 교환하기만 함
- 지자체의 예산 확인 절차가 있는지?
 - 예를 들어 4년 기간의 분석작업은 정찰로 되어있어 25%씩 해마다 수령
 - 건설사업은 다른 예산을 활용
- 국가 예산 사용시 심의가 있는지?
 - 처음 공모에 지원할 때 계획서를 제출, 연간 예산계획을 제출하며, 선정이 되면 별도의 심의는 없음
- 작업하면서 있었던 갈등?
 - 큰 갈등은 없었음
 - 결국 시간 문제임, 주민과 관계를 맺기 위한 절대적 시간 필요
- 소셜믹스를 위한 노력은?
 - 복합적인 주제이며 어려운 문제임
 - 이는 건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됨
 - 사회적 인프라와 상업적 인프라가 모두 중요, 프랑스는 빵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빵집이 소셜믹스를 위한 역할도 수행 가능
 - 도시공간에서의 사회적 혼합을 위해서는 경험상 큰 공간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 작은 공간을 여러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그룹 특성에 따라 작은 공간이 여러개 있으면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이 도시공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L'Adeus 소개

- (개요) 도시사회학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에이전시임
- (사업영역) 공공용역
- (전문분야) 도시공간내 불평등 해소, 주민을 도시사업의 주체로 만드는 것
 - 3-4명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조직과 컨소시엄으로 활동하고 있음
 - 주민참여 관련 용역을 주로 수행
- (지역조사) 3개 방법 사용 : 1) 정성적 접근, 2) 정량적 접근, 3) 주민참여

※ Maxence Moreteau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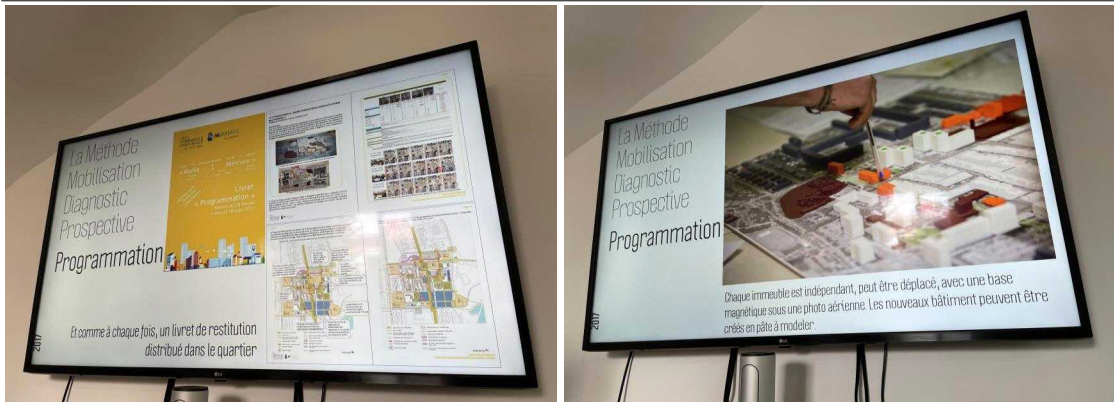
-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사회 연구소 L'Adeus에서 도시사회학자 및 환경계획엔지니어로 활동하며 마르세유(Marseille)의 La Castellane, 미라마스(Miramas)의 Maille I-Mercur e, 살롱드프로방스(Salon de Provence)의 Les Canourgues, 마노스크(Manosque)의 Arc-Sud, 보베흐(Vauvert)의 Les Costieres 등 다수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총괄 및 참여
- 2003년 DESS(Dipome d'etudes Superieures Specialisees) 학위, Local and Urban Development, Universite Aix-Marseille



L'Adeus 사무실 내외부 전경 (연구진 촬영)



Maxence Moreteau 면담 및 발표자료 (연구진 촬영)



L'Adeus 발표자료 (연구진 촬영)

13. (현장조사) Coco Velten

- 일시 : 2023.9.1.(금) 14:00-16:00
- 장소 : 마르세유 Coco Velten
- 업무 : 민간 주도의 시설 점유·활용, 공공 매입 등 시설조성 및 운영 과정 조사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개요) 유휴공간을 재생하여 2019년 개관한 복합시설로 홈리스의 임시주거지, 시민단체의 사무실, 레스토랑으로 활용
- (운영) 건축가 그룹 Yes We Camp, 지역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 (면적) 4,000㎡
- (성과) 개관 이래 홈리스 135명 지원, 사무실 55개 입주, 문화행사 261개 진행
- (특징) 시민사회와 연대경제를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마르세유시의 임대주택과에서 건물을 매입



Coco Velten 외부 전경 (연구진 촬영)



Coco Velten 내부 전경 (연구진 촬영)



Coco Velten 입구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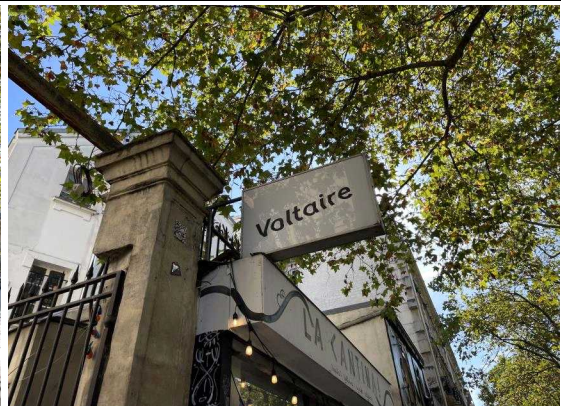


내부 공간 및 조성 연혁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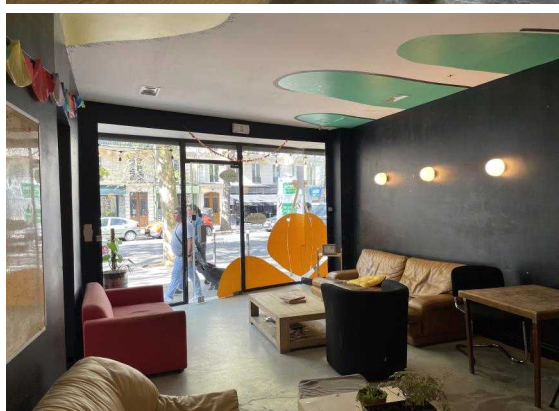
14. (현장조사) Espace Voltaire

- 일시 : 2023.9.2.(토) 10:00-12:00
- 장소 : 파리 Espace Voltaire (파리 11구 볼테르 81번가)
- 업무 : 민간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사회혁신실험 사례 및 운영현황 조사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개요)** 부동산투자회사 Ivanhoe Cambridge가 건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기 위해 임시점유하며 다양한 용도로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전문기업에 의뢰하여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
- **(주체)** 건물 소유주체 Ivanhoe Cambridge, 프로젝트 수행주체는 유희공간 재생 전문회사 Plateau Urbain
 - **(소유주체)** Ivanhoe Cambridge는 캐나다의 부동산회사로 전 세계에 부동산을 투자, 개발, 운영 및 임대 관련 활동을 하는 회사
 - 프랑스에서는 건물을 비워둘 때 건물의 CCTV 등의 보안, 유지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
- **(규모)** 면적 3,000m²
- **(입주)** 70여개 창작단체
- **(시설)** 카페, 소품 판매장, 창작단체 작업실 및 사무실, 전시관(폐쇄)
 - 방치된 산업공장을 지역 예술가를 위한 창작과 예술작품의 보급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제작 및 임시전시 장소로 활용
 - 카페의 경우 운영주체가 낮은 임대료로 전대하여 별도 주체가 운영 중 임대료가 낮아 메뉴의 가격도 낮게 책정, 저비용의 예산으로 카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방문객이 카페시설로 쓰일 의자, 테이블 등의 가구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
 - 인근 지역에 개방된 2개의 상점/워크숍인 Atelier Voltaire 와 Bleu Simone 공간을 제공하고 거주자와 외부 예술가의 전시 및 개인 이벤트를 주최하는 이벤트 공간을 제공
 - 임시점유가 끝나면 재건축되어 주택, 다목적 업무공간, 상점이 결합된 새로운 복합 단지를 제공할 예정
 - 프랑스 임시점유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인허가 기간의 시설물 관리의 목적, 지역활성화 목적, 시설물 용도 탐색 등이 있으며, 본 사례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시설물의 용도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활용
 - 상점의 경우 입주한 예술가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부에서 조달한 상품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수익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Espace Voltaire 외부 전경 (연구진 촬영)



Espace Voltaire 내부 카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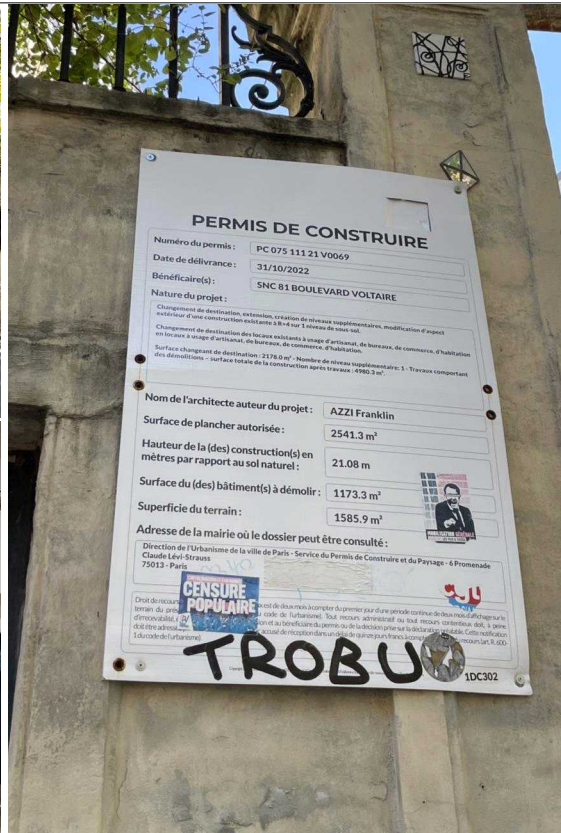
가구 기부 무료 식사제공 안내판



Espace Voltaire 카페 건물 전면(연구진 촬영)



Espace Voltaire 내부 중정 (연구진 촬영)



소품 판매장 및 건축물 현황 (연구진 촬영)

15. (현장조사) Ground Control

- 일시 : 2023.9.2.(토) 14:00-16:00
- 장소 : 파리 Ground Control
- 업무 : 사회혁신실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시설 공간기획 현황
- 조사자 :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개요) 프랑스철도청이 소유한 우편물 분류소를 재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프로그램 구성시 사회혁신실험 활용
- (운영) 이벤트기획사 La Lune Rousse
- (면적) 6,500㎡
- (기능) 행사 개최, 식음 판매, 소매점 및 팝업
 - 문화 및 예술 이벤트 : 예술가, 밴드, 디자이너, 예술 단체들이 다양한 문화 및 예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음악, 전시회, 공예, 축제, 강연 및 워크숍 등 개최
 - 식음 판매 : 다양한 음식과 음료 제공하는 레스토랑, 바, 카페 등이 있음
 - 소매점 및 팝업 상점 : 다양한 소매점과 팝업 매장이 위치하며 지역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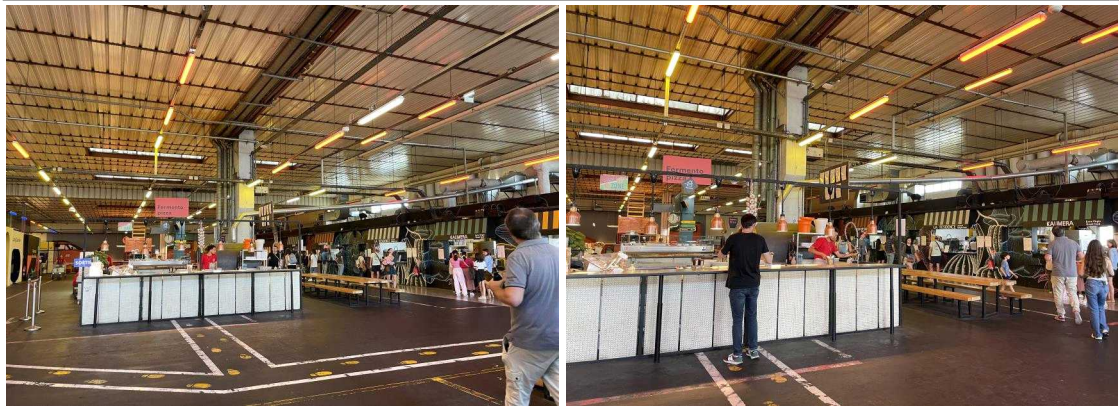
Ground Control 입구 및 내부 전경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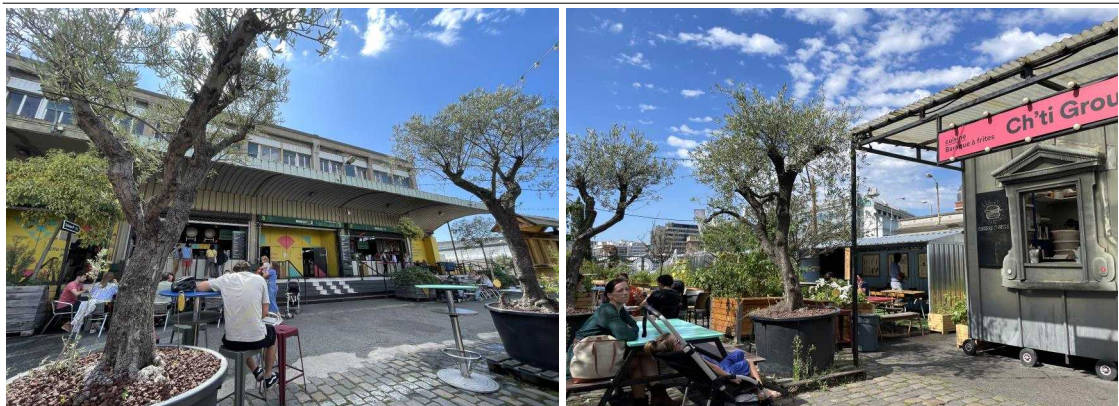
농산물 팝업 판매장 전경 (연구진 촬영)



내부 오픈스페이스 (연구진 촬영)



실내 전경 (연구진 촬영)



외부 전경 (연구진 촬영)

16. (면담) 소르본대 기업가정신·지역·혁신 연구소(Chaire-ETI)의 한승훈 디자이너

- 일시 : 2023.9.2.(토) 16:00-18:00
 - 장소 : 파리 Station F
 - 주요안건
 - 프랑스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및 현황
 - 프랑스 도시재생사업 내 사회혁신실험 프로젝트의 특징 및 절차
 - 참석자
 - (원외) 한승훈(Chaire-ETI 도시디자이너)
 - (원내) 정인아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 한국인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다른 점을 고민
 - 문화적, 역사적으로 시민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한국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
 - 프랑스의 시민참여
 - 프랑스에서는 공공에 대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함
 - 전면철거 방식의 Station F 사례가 프랑스에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페스티벌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함, 프랑스는 작은 공간을 만들더라도 시민들이 연대하고 각각의 행복지수와 환경성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함
 - 한국의 시민참여
 -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보안등을 달고 벽화를 그리는 수준인데, 지역성을 발굴하는데 좀 더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음
 - 사회혁신실험
 -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자유로운 부분이 있음
 - 한국은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수행주체는 스트레스가 심함
 - 프랑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됨
 -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많이 진행
 - 한국의 공청회는 계획안을 디펜스하는 자리라면, 프랑스는 아이디어 초기부터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마련
 - 프랑스에서도 선진적인 개념(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프랑스의 도시계획의 역사는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역사와 같다고 생각함
 -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중요

※ 한승훈 도시디자이너 이력

-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프로젝트를 개발한 싱크탱크 Chaire - ETI의 도시디자이너로 활동 중
- 프랑스 그랑제콜 L'Ecole de design Nantes Atlantique 석사 졸업
- 경관디자인분야 7년 경력(도시경관연구소 올, 이아이환경디자인, 경관공학연구소)
- 전 브랜딩디자인연구소 '한스투두' 대표



회의 전경 (연구진 촬영)

III. 출장 성과 및 시사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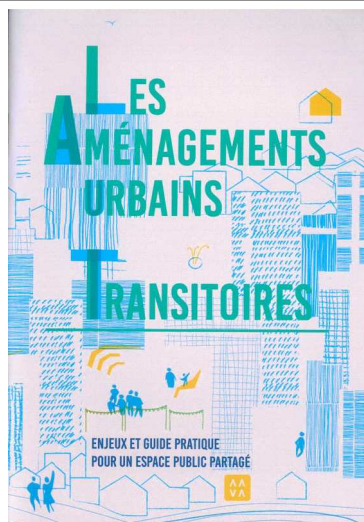
□ 프랑스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추진 현황과 성과 파악

- 문헌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프랑스 현지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현황과 물리적 성과, 추진 과정, 주요 수행주체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
- 수행주체 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 사회혁신실험 추진 가이드라인 작성시 참고
- 사회혁신실험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트랜지셔널 어바니즘의 이론적 토대와 역사, 실천 방법 등을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익 발생이 어려운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 적용시 고려해야 할 요소(사업기간, 예산, 협업주체 등)를 발굴 할 수 있었음
-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또는 사회혁신실험 관련 논의의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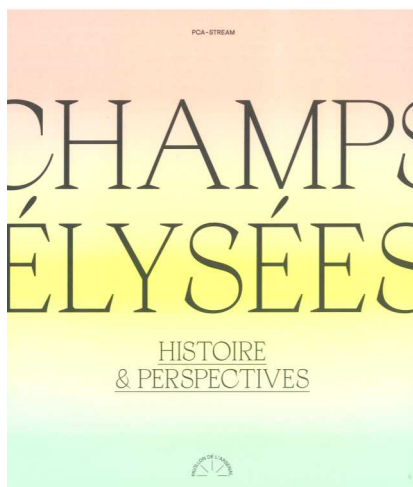
□ 프랑스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추진 주체 간 교류 및 협력 모색

- ANRU의 경우 출장 이전에도 국제협력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본 출장에서 구체적인 관심 분야와 협력 방향을 논의
- Cabanon Vertical, Plateau Urbain 등 프랑스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사업 추진주체와 교류하여 기 추진 사례의 시행착오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 사례 추진시 협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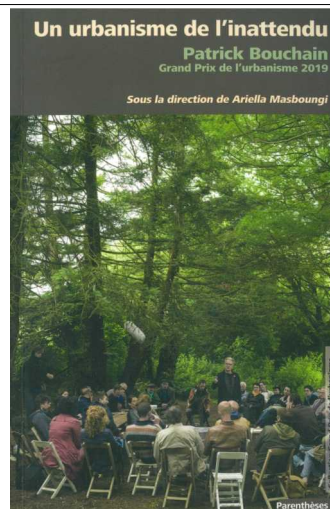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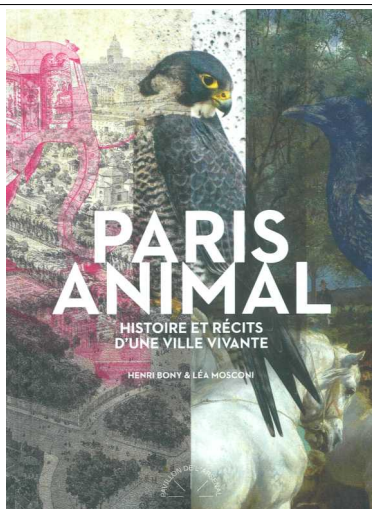
IV. 취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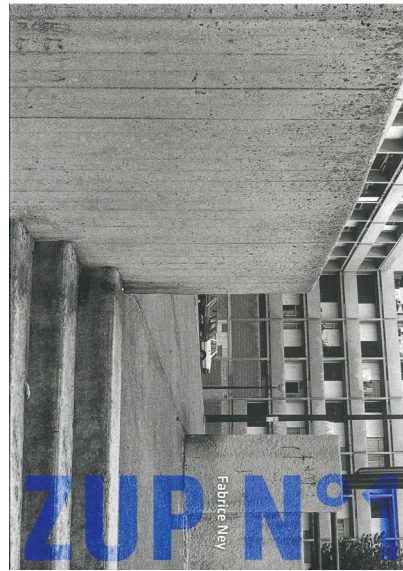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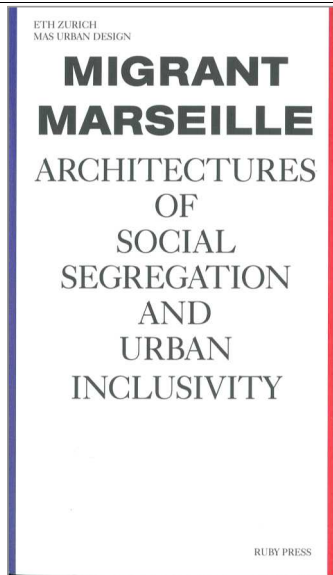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가이드북 (ANRU 작성(좌), Cabanon Vertical 작성(우))



공공공간 조성 관련 서적 (샹젤리제 거리(좌), 프리슈 라 벨 드메(우))



도시공간 관련 자료 (파리의 동물(우), 예상치 못한 도시계획(우))



마르세유 건축 및 도시 관련 서적 (분리와 포용의 건축(좌), 마르세유 건축물 사진집(우))
